

신태용 “최종엔트리, 70%정도 구성”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에게 손흥민 활용 팁 얻어 “원톱도 가능”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터키 전지훈련...3~4차례 평가전도

2018 러시아월드컵을 앞둔 축구 대표팀의 신태용 감독이 유럽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을 살피고 돌아왔다. 최종명단 중 70%는 이미 구성했다는 속내도 밝혔다.

신 감독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약 보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영국에서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정용(크리스탈 팰리스), 프랑스에서 석현준(트루아) 등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이달 말 비유럽과 선수들 중심으로 유럽 전지훈련을 계획 중인 신 감독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기존 선수들과 어떤 조합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구상을 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머리 안에 (최종엔트리의) 70%정도 구성이 돼 있다. 나머지 30%는 경쟁 구도에 있는 선수들이며 “5월까지 여유 있게 살펴 보면서 만들어갈 생각이다”고 했다.

이어 “팀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수를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신을 버리고 팀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선수를 최우선으로 보겠다”며 “상대보다 약체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한 발 더 뛰며 희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5일 오후 유럽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과 석현준 등 해외 파 선수들의 점검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귀국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하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출장에서 손흥민과 세 차례 면담을 했다는 신 감독은 그의 소속팀 토트넘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미팅도 소개했다.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고 했다.

신 감독은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공격에서 원톱까지 설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해리 케인이 다쳤을 때, 원톱 공격수로 세운 선수가 없어 손흥민을 세웠는데 좋은 활약을 펼쳤고 경기도 이겼다고

하더라”며 “나에게 ‘원톱에 사이드 공격까지 겸비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힌트를 줬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 이날 새벽 손흥민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39분 환상적인 중거리 슈트로 시즌 10호골을 터뜨렸다. 신 감독은 손흥민의 볼오른 골 감각에 대해 “토트넘 연습장에 가서 훈련을 지켜보고 포체티노 감독과 셋이 대화도 나왔다. (손)흥민이가

감독님이 직접 와줘서 힘이 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좋은 골을 넣지 않았나 싶다”며 웃었다.

최근 프랑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석현준에 대해서는 “12월 20일 경기를 앞두고 티타임을 가졌다. 상당히 팀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며 “부상만 없다면 김신욱, 황의찬, 진성욱 등과 공격수 경쟁이 될 것이다”고 했다.

신 감독에 따르면, 최근 부상으로 결장한 기성용은 경기에 뛸 수 있는 몸 상태다. 소속팀 스완지시티에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안정을 주기 위해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용에 대해서는 “월드컵 출전에 대한 갈망이 컸다. 본인이 팀을 이적해서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에이전트와 (이적에 대해) 협조 중이다. 어느 팀을 가야할지 경기를 뛸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표팀은 이날 22일 터키 안탈리아로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이다. 앞서 전지훈련에 참가할 선수 명단은 15일에 발표한다.

이후 3월에는 폴란드와 붙는다. 원정이다. 폴란드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위의 강호다. 이 때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합류한다. 신 감독은 “유럽에 나가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보다는 단점, 보완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스켈레톤 세계랭킹 1위 윤성빈이 6일 독일 알텐베르크에서 열린 IBSF 남자 스켈레톤 월드컵에서 안정된 주행으로 1위를 차지했다.

‘마의 트랙’도 거침없는 윤성빈 황제 두쿠르스 독주에 ‘종지부’

약명 높은 알텐베르크서 4번째 금... ‘윤성빈 시대’ 활짝

“알텐베르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두쿠르스와 차이가 없다면 분명 그를 넘어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스켈레톤 세계랭킹 1위 윤성빈(24·강원도청)은 과연 이 종목 황제라 불리는 마르틴 두쿠르스(34·리투비야)를 뛰어 넘을까.

대한민국 스켈레톤·봅슬레이 대표팀을 이끄는 이용 총감독은 지난해 12월 30일 국제봅슬레이 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6차 대회에서 열린 독일 알텐베르크로 떠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6일 윤성빈은 월드컵 6차 대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며 자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세계에 알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월드컵 6차 대회는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사상 역대 종목 첫 금메달이란 대업을 이루기 위해 그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윤성빈은 이번 대회 전까지 올 시즌 5차례 월드컵에서 두쿠르스에 3승 2패로 앞서며 세계랭킹 1위를 지켰지만 그를 넘어섰다는 확신을 주지는 못했다.

그 동안 북미권 트랙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이 적은 유럽에서 두쿠르스에 열세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IBSF 공식 인증 16개 경기장 가운데 코스 난도가 가장 높은 알텐베르크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2014~2015시즌 10위를 했고, 2015~2016시즌에는 12위로 부진했다. 우승권에서 경쟁을 벌인 지난 시즌도 1, 2차 시기 모두 5위에 머물며 만족스럽지 못했다.

올 시즌 두쿠르스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윤성빈이 알텐베르크에서도 대담한 레이스를 펼치거나 앞선다면 진정한 1인자의 칭호를 얻을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윤성빈은 주변의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듯 알텐베르크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레이스로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 최강의 스타트로 폭발적인 초반 가속력이 붙은 윤성빈의 썰매는 거침이 없었다.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약명 높은 트랙에서 굳어지지 않는 레이스 운영을 했다.

이날 두쿠르스에 1초21이나 앞선 결과로 나타났다. 올 시즌 4승 2패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지난 시즌까지 8연속 세계랭킹 1위를 지켜온 두쿠르스의 독주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기도 했다.

더욱이 윤성빈은 올 시즌 미국 파크시티(2차 월드컵), 캐나다 휘슬러(3차), 독일 빈터베르크(4차)에 이어 알텐베르크에서도 우승하며 북미와 유럽을 가리지 않았다. 1, 5차 대회도 간발의 차로 2위를 하는 등 기록 없는 레이스를 선보였다.

성빈은 오는 13일 스위스 샹모리츠에서 열리는 월드컵 7차 대회에서 5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20일 독일 괴닉에서 펼쳐지는 월드컵 8차 대회에 불참하는 만큼 7차 대회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 실전 무대다.

두쿠르스에 확실한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7차 대회에서도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마지막 탐험길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뉴시스

김봉길 감독, 손흥민 ‘와일드카드’ 언급...병역면제 주목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8월18일~9월2일)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김봉길 U-23(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 와일드카드 후보로 분류되는 손흥민(토트넘)의 차출을 두고 “지금부터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5일 U-23 대표팀이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을 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아시안게임은 23세 이하 선수들이 주를 이루는 대회다. 아시안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아시안게임에 비하면 비중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금메달을 따낸 선수 생활의 최대 걸림돌인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회 개막까지 7개월이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손흥민(토트넘)의 합류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만 26세인 손흥민은 와일드카드(3명) 자격으로 뛸 수 있다.

부상만 없다면 손흥민은 와일드카드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 확실시 된다. 김 감독 역시 특정 선수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팬들과 모두가

김봉길 감독, 손흥민 ‘와일드카드’ 언급... 병역면제 주목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5일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시즌 EPL 21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39분 화려한 중거리 슈트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인정할 수 있는 선수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변수는 소속팀 토트넘 핫스퍼의 반응이다. 아시안게임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A매치가 아닌

타에 반드시 구단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4년 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레쿠젠(독일)에서 뛰던 손흥민의 차출을 희망했지만 소속팀 반대에 가로막힌 경험이 있다.

김 감독은 “안 그래도 오전에 흥명보 전무와 이야기를 나눴다. 협회에서도 뛰고, 감독도 직접 구단을 찾아가 정성을 기울이고 했다”면서 “손흥민 뿐 아니라 와일드카드 후보를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구단에 정성을 들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집된 23명의 선수들은 9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장쑤성에서 열리는 2018 AFC U-23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한국은 베트남, 시리아, 호주와 D조에서 경합을 벌인다. “감독들 목표는 다 정상 아니겠느냐는 김 감독은 “준비 기간은 짧았지만 최소 4강에 들어 우승까지 욕심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포커스는 11일 베트남과의 첫 경기에 맞춰고 있다. “민민합 팀은 없다. 베트남에는 훌륭한 박항서 감독님이 있다. 이 팀을 정책적으로 키웠다고 들었다”면서 “스피드가 있고 역습에 능하다. 수비는 미흡하지만 압박을 많이 하고 동남아 특유의 순발력이 좋다”고 경계했다.

전남드래곤즈 울산대 출신 미드필더 김선우-백승현 영입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 팀에 보탬되는 선수 될 것”

2018시즌 K리그 상위 스플릿 도약과 FA컵 우승을 위해 혁신과 변화를 진행중인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가 중원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대 출신 미드필더 김선우 선수와 백승현 선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이적한 김선우 선수는 U-17, 18, 19, 20, 21대표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차세대 스타다.

2013년 터키에서 개최된 U-23월드컵에서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하였으며, 전남에 새로 부임한 유상철 감독과 울산대 사제관 겸 김선우 선수의 강점은 볼 키핑 능력.

작은 신장에도 밀리지 않는 몸싸움, 수비형 미드필더 답지 않는 뛰어난 발재간으로 기대가 큰 유망주이며, K리그 28경기 출장하여 1득점 1도움을 기록 중이다.

백승현 선수는 울산대학교 주장을 맡아 2017년 추계연맹전에서 울산대의 준우승을 이끌었으며, 2017시즌 대학연맹 우수선수상을 수상하였을 만큼 섬세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다.

대학은 유상철 감독 지도이래 첫 프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김선우 선수와 백승현 선수는 “감독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 감독님이 불러주시는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 감독님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강정호 너마저도” 유턴 가능성 ↑

도미니카 리그 적응 실패, 계약해지 후 친정팀 벡센 복귀 전망

메이저리그 복귀를 노리는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러츠)가 미국 비자 발급 문제로 KBO리그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피츠버그 지역매체인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5일 장문의 기사를 통해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진출과 몰락 과정, 근황 등을 비교적 상세히 전했다. 3차례 유증진과 사고로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강정호는 피츠버그 구단의 도움으로 도미니카 리그에서 실전 감각을 익히며 복귀를 준비했다.

그러나 강정호는 아길라스 시바에나스 소속으로 24경기에 출전해 타율 0.143(84타수 12안타) 1홈런 10타점 8볼넷 31삼진의 처참한 성적을 남겼다. 결국 방출 통보를 받고 도미니카 리그를 떠났다.

피츠버그포스트가제트는 아길라스의 매니 액타 감독을 인터뷰. “강정호의 스윙에서 1년 동안 투수의



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다”며 “처음에 그를 확대하던 팬들도 경기를 보고 실망했다. 그의 등번호 13번이 적힌 유니폼을 입은 관중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강정호는 2018년 300만 달러의 연봉과 2019년 계약 연장을 위한 팀 옵션 550만 달러 등의 계약이 남아 있다. 사실상 계약 마지막해인 2018시즌 메이저리그 복귀를 노리고 있지만 도미니카 리그의 실패는 전망을 어둡게 했다. 여기에 비자 발급이 또 다시 거부되면 복귀는 더욱 요원해진다.